

서울 보훈병원 호스피스

강동구 둔촌동 6-2 서울 보훈병원 호스피스사업실

전화: 2225-1781 FAX: 2225-1709

홈페이지: <http://seoul.e-bohun.or.kr/kvmc/hospice>



보훈병원 전경

서울 보훈병원은 서울의 가장 동쪽인 강동구 둔촌동 일자산의 8월 녹음을 뒤로 한 채 넓은 공간에 아담하고 산뜻하게 자리 잡고 있다.

50여년 병원의 나이만큼이나 잘 자라 준 정원수들은 병원 방문객들의 발길을 한 번 더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고 병원을 찾는 국가유공자들과 그 유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친근하고 가족같은 병원으로서의 이미지를 더해주고 있다.

총 820병상으로 국가유공자와 지역사회 주민의 진료와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보훈병원은 국가의 부름으로 국가 보훈사업에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

그 중 서울 보훈병원 호스피스는 1999년 2월8

일 내과 병동에 입원중인 말기 암 환자들을 중심으로 산재 형태로 출발하였다. 처음에는 간호부내 호스피스과로 신설되어 간호부 조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병원의 호스피스 사업 활성화 계획에 따라 2001년 5월 진료 부서로 직제가 이관되어 오고, 현재는 원장실 직속 부서로 되면서 호스피스 활성화 사업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있다.

운영방법으로는 산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월 40~50여명의 환자가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내과 암 병동에 호스피스 병실 4bed와 임종 실 2bed가 각각 신설되면서 호스피스 대상자들의 요구에 더욱 부합되는 효율적인 호스피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본 병원 호스피스팀은 재원중인 국가유공자들의 고령화와 더불어 퇴행성 만성 질환 및 각종 암 발생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종을 앞둔 국가유공 환자분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도움을 주며 자신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고 남은 삶은 더욱 유용하게 살 수 있도록 환자와 그 가족의 정서적 안위를 도모하여 말기 환자를 끝까지 지지하고 자긍심을 지켜주어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 보훈병원 호스피스팀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 휴머니즘을 기본철학으로 하고 있으며 종교적 차별이나 편견 없이 호스피스 대상자들에게 골고루 호스피스 간호가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종교에 입교를 원하는 환자들은 병원 내에 있는 교회, 성당, 법당의 각 성직자 및 그 종교 단체의 봉사자들과 연결시켜 상담을 주선해 주며 이미 종교를 선택한 환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에 맞는 원목자와의 상담 통해 영적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호스피스활동으로 종교의식도 함께 가질 수 있다.

1999년 설립 초기에는 지역사회 교회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교회 신자들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팀이 구성되어 오다가, 2000년부터는 본 병원에서 실시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이수한 지역 주민들이 호스피스 활동에 직접 나서서 현재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를 가진 35명의 자원봉사자가 호스피스 사업실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밖에도 종양 전문의 1명, 호스피스 전담간호사 2명 사회사업실, 원목실이 팀을 이루어 호스피스 사업실의 중요한 식구로 활동하고 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주 1회 4~5명의 봉사자들이 그들의 특기에 따라 봉사하고 있다. 봉사자 모임은 월 1회 개최하는데 팀 모임을 통해서 봉사자 재교육과 봉사자간의 정보교환, 호스피스 사업에 대한 건의 및 시정 사항 등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의사, 간호사, 성직자, 사회사업가등 직원들의 팀 모임은 수시로 이루어지며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conference가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호스피스 사업실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은 호스피스 전문 팀들이 각 분야별 영역별로 주제를 정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입원 환자나 외래 통원 환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호스피스 사업실은, 수간호사 1명, 실무 간호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위한 정규교육은 본원에서 주최하는 '봉사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이론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년 1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별가족 프로그램으로는 년 1회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가족 모임을 갖고 있다. 이미 고인이 되신 환자를 돌보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생전의 그분을 기억하고 국가에 대한 업적을 기리며 남아 있는 가족들과 한 분, 한 분 참배를 하고 나면 어느새 한마음이 되어있음을 느낄 수 있다. 가족들과는 꾸준한 대화를 통해 서로 지지 모임을 갖고 위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 외에도 사별가족에게 편지와 엽서 보내기, 전화방문 등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담 및 유가족 방문은 병원 사회복지사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보훈병원 호스피스 사업실은 지방 4개 보훈병원의 호스피스실이 탄생하는데에도 초석이 되어 사업 방향을 알려 주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큰 집으로서의 호스피스 역할과 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보훈병원 호스피스 사업실은 호스피스 사업의 조기 정착과 팀원들의 열정, 호스피스 대상자들의 만족도 등을 인정받아 우수부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제 올해의 남은 목표는 호스피스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형식이 아닌 정말 내실 있는, 호스피스 대상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호스피스 사업을 실시하여 마지막 남은 시간을 가장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보훈병원의 호스피스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보훈공단 및 보훈병원의 관계자 여러분과 호스피스 팀원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호스피스의 숭고한 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열정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 요셉호스피스

충남 천안시 쌍용동 967 천주교 쌍용성당
전화: 041-571-4787 FAX: 041-571-4788
홈페이지: www.catholic-ssangyong.or.kr



▲ 천안 요셉호스피스 창단식

1. 설립일

2004년 12월 21일

2. 설립 목적

천안지역의 호스피스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호스피스 대상 환우들에게 총체적 돌봄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3. 연혁

2004년 8월 13일 천안 천주교 쌍용동 성당에서 호스피스 교육 실시

2004년 9월 13일 '천안 요셉호스피스' 라는 이름으로 첫 모임 개최

2004년 11월 23일 대전 보훈병원 호스피스 교육 참가

2004년 12월 2일 단국대 간호학술대회: 천안호스피스네트워크 구축방안(강사:최필순 수녀)

2004년 12월 21일 천안 요셉호스피스 창단식

2005년 3월 18일 제6차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완화의료 국제학술대회 참여

2005년 4월 13-14일 요셉호스피스 자원봉사자 1차 교육

2005년 4월 27일 1차 보수교육: '말기암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강사: 최필순 수녀)

2005년 5월 7일 분당 보바스기념병원 방문

2005년 5월 25일 2차 보수교육: '자궁 경구암에 대하여' (강사: 이화 여성병원 박보림)

2005년 6월 8일 3차 보수교육: '호스피스와 윤리' (강사: 순천향대 엄영란)

4. 주요활동

요셉 호스피스는 가정호스피스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사(1명), 간호사 및 간호학 교수(10명), 사목자(3명), 사회복지사(3명), 자원봉사자(29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환자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제공한다. 통증을 경감시키거나 수면장애, 복수, 호흡곤란, 변비 등 제반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신체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과정 중에 겪었던 다양한 갈등(가족 간의 갈등, 사회적 갈등, 영적 갈등)을 풀어나가도록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고, 또한 죽음을 삶의 일부분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총체적 돌봄 활동(holistic care)을 한다.

의료인과 일반 봉사자들의 환우 방문은 주 2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환우의 상태에 따라 환우가정을 매일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월 2회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활동내용의 나눔과 이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의료인들 모임도 월 2회 실시하여 의료적인 새로운 정보 교환 및 환우들의 상태를 나눔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이밖에도 천주교 쌍용동 성당 홈페이지와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josephospice>를 이용하여 활동사항을 게재하고 있으며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

현재 천주교 쌍용동 성당, 천안 보건소, 이화 여성병원, 한사랑 가정의학과, 단국대학 병원, 순천향대학 병원을 포함한 천안지역의 여러 단체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천안 보건소와 연계해서는 봉사비 일부를 지원 받고 있다.

환우 의뢰는 주로 순천향대학 병원과 단국대학 병원에서 행해지나 일반인들도 환우를 의뢰할 수 있다. 본 회의 대상 환우는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요셉호스피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설립 첫 해인 2004년에는 환우 7명의 임종에 함께 하였으며 2005년 7월 현재 환우 5명의 임종에 함께 하였고 1명은 돌봄 중에 있다.

5. 임원

- 회장 : 성태수
- 총무 : 정영자, 구영미, 유순덕,

6. 기타

- 현재 회원수 : 47명
- 가입대상 : 천안 지역내 호스피스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 누구나
- 회합일: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16:00시
- 회합 장소: 천안 이화 여성병원 8층 세미나실 (의료인 모임 당일 12시)
- 연락처: 천주교 쌍용동 성당 : 041-571-4787
- 단국대 병원 원목실 : 041-550-7110
- 이화 여성병원 간호과 박보림 : 041-551-2475
- 성태수 회장: 016-463-3892



▲ 분당 교육



▲ 분당 보바스기념병원 방문